

바다에서 즐기고 의미를 찾는 해양담론의 목적향을 향하여

단순히 바다를 감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바다에서 즐기고 노는 진정한 '바다로부터'의 시각을 갖고 바다역사와 바다문학을 논의하기 위한 담론장을 꿈꾸어 왔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해양사라는 생소한 주제로 학위를 마치고,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넘쳐흘렀다. 주변의 해양사에 관심있는 몇몇 선배 분들에게 이제 우리도 '해양사학회'나 '해양사론' 같은 전문 학술지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 해양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을 한 손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정임을 감안하면 10여년 전에 별 생각없이 했던 이야기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라는 것을 그때는 무척이나 세상 물정을 몰랐었던 것 같다.

흔히 뱃사람들에게는 15분전 상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배가 정해진 시간에 출항을 하기 위해서는 그 15분 전에는 출항을 위한 모든 준비, 즉 사람의 탑승, 물건의 선적, 기관 및 항해장비의 시동 등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하면 바다라는 담론장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완료하여 담론장 출범의 15분 전 상태로 대기한 지 벌써 10여년이나 흘렀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환경이 바다를 매개로 한 문학이나 역사토론의 장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 인지를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혹자는 해양수산부도 재출범하였고, 해운도 세계 5위, 조선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이른바 공영방송에서 장보고를 소재로 한 역사드라마 ‘해신’까지 방영된 적이 있다고 반문할 지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무슨 무슨 해양문화상이다 하는 것들이 여기 저기 시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해양담론장이 없네’ 운운 하는 소리가 무슨 똥판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미 최남선에게서 시작된 바다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은 거의 한 세기가 다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산을 소재로 한 영상다큐가 매주 일요일 방송되는 것과 달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소식은 어선 좌초나 해양사고 같은 것들 외에는 이렇다할 것이 없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는 해양민족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러한 환경에서 〈해양담론〉 호를 출범시키는 목적은 명확하다. 그것은 바라보는 바다, 관조의 바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고 노는 일터이자 놀이터로서의 바다를 터놓고 얘기하는 해양역사와 해양문화, 그리고 해양문화의 담론장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데 있다. 물론 담론이 담론으로 그쳐서는 안되기에 정책과 사람들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목적항이 분명한 만큼 우리들이 바다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명확하다. 창간기념좌담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우리들이 바다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다로부터’이다. 땅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아니라 ‘바다에서부터’ 바다와 육지를,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인 배와 뱃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필수불가결하다. 인간은 바다 그 자체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바다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결국 육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지만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배를 운용하는 뱃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

면 안된다. 우리는 바로 배에 대한 이해와 뱃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를 품고 있는 대륙과 섬을 바라볼 것이다. 그것은 단지 육지중심의 시각을 바라보던 종래의 관점을 바다중심으로 돌려 또 하나의 중심을 만들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바다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과 역사,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해양담론』은 해양역사, 해양문학, 해양문화 등 해양인문학을 포괄하는 해양문화·정책담론장을 지향할 것이다. 다만 해양문학에서는 이미 기존의 해양문학 창작집들이 다수 발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되 비평을 주로 다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미술, 과학, 생태, 환경 등 이른바 이슈가 되고 담론이 될 수 있는 해양관련 주제들을 폭넓게 다룰 것이다. 이번 창간호에는 해양문학과 해양역사, 그리고 해양문화, 해양자료, 해양사의 한 장면, 해외해양사론 등을 중심으로 꾸몄다. 창간기념좌담회에서는 <해양담론>의 지향점과 대중화를 화두로 하여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김주식 선생이 해양논평으로 ‘바다에서 역사를 보다’라는 제하로 해양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재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해양문학에서는 옥태권 선생이 ‘김훈의 『칼의 노래』 서술전략’을 논하였고, 해외해양사론으로 지메이(集美)대학의 추이원평(崔云峰) 선생이 ‘중국 내 이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였으며, 해외해양문화에서는 취안저우(泉州)의 해외교통사연구소의 첸샤오첸 선생이 ‘천주 돌 문화와 민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중국 내 해양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현황을 소개해주었다. 해양담론이 중점을 둔 분야인 해양사론에서는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사의 현장을 다루는 2편의 글을 실었다. 김주식 선생은 ‘해방사적 시각에서 본 목포의 해양전략적 가치’를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였고, 정진술

선생은 '왕건의 나주 공략과 고하도'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해군사관학교의 신성재 선생의 토론문도 함께 실었다. 두 분의 학술적 토론이 우리 해양사 연구의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밖에 해양자료발굴에서는 6·25동란기 미해군에서 작성한 <전쟁일지>를 처음으로 발굴하여 소개하였고, 해양사의 한 장면에서는 1957년 당시 국책해운회사였던 대한해운공사를 상법상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정부법안에 대한 김재곤 의원의 반대 토론을 실었다. 시간적으로 60여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업과 해양산업, 나아가 해양문화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의식 수준은 그때와 비교해서 별반 나아진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곧 <해양담론>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의미로 좋게 해석하고 싶다.

해양담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월 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였다. 한 바다를 항해했던 항해사로서 그리고 해양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연구자로서 암울한 한 달여를 보냈다. 항해사 시절 잘못된 관행에 익숙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바다와 배를 멀리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서 무척이나 힘든 나날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다와 배는 바다가 곁에 있고,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만 한다는 당위가 있다. 그만큼 해양담론에 주어진 과제와 역할이 막중하다는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제 해양담론 호는 출항하였다. 우리가 목적항으로 설정한 '즐거고 의미를 찾는 바다라는 담론장'에 도달할 때까지 항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바라마지 않는다.

2014년 봄
편집주간 김성준